

아슬아슬 경제 '高-高'악재, 성장률 2.5%도 장담 못 해

(고유가-고달러)

투자·생산 위축에 자본유출 '삼중고' 달러화 가치 상승... 투자 이탈 위험

국제 유가가 중동 지역의 불안 고조와 수급 불안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가 상승의 여파로 세계 6위 원유 수입국인 한국은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유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화 가치까지 오르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덕분에 한국이 생산·투자 활동 위축과 자본 유출이라는 삼중고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 가다간 2.5% 성장도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 ◆**고유가에 기업 매출 감소·구매력 약화 우려** ↓

블룸버그에 따르면 22일 정오 현재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65.87달러에 거래됐다. 작년 10월 31일 배럴당 65.99달러를 기록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앞서 지난 18일(현지시간)에는 배럴당 64.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71.97달러에 마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이 감소하고, 미국의 석유생산 채굴장비 가동수가 줄어든 것이 상승 동력이 됐다.

유가가 오르면서 섀넌도 복잡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국내 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유가가 10% 오르면 통상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오른다"며 내수와 투자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5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상 물가 목표치는 2.0%다. 내수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단위: %)

국제유가 시나리오	GDP	GNI	소비	투자	수출	CPI
60\$/bbl	-0.22	-0.29	-0.19	-1.76	0.25	0.14
70\$/bbl	-0.59	-0.77	-0.50	-4.66	0.67	0.37
80\$/bbl	-0.96	-1.25	-0.81	-7.56	1.08	0.61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가 얼어붙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면 저협압(디플레이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긍정적이다.

하지만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 지나친 유가 상승은 경기 회복 흐름에 걸림돌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은 원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생산활동과 투자는 위축된다. 실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2011년~2014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률은 7.5%에서 5.1%로 하락했다. 이대로 가다간 2.5%(한국은행 성장률 전망) 성장도 장담하기 힘들어진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소비가 0.81% 줄어 들고 기업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투자는 7.56% 감소한다.

수출도 판매 단가 상승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료비, 난방비 등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자가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지출 여력 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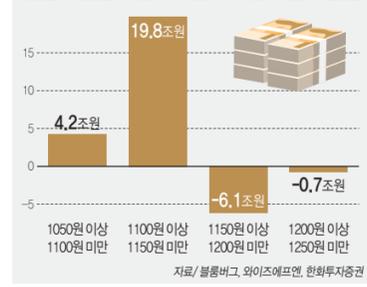
◆**원화값 하락 ↓, 자본유출 우려 커져**

미국 달러화가 최근 강세로 돌아선 점도 우려다. 통상 유가와 달러 가치는 반대로 움직인다. 닷케이션문에 따르면

인터컨티넨탈 거래소(ICE, The Intercontinental Exchange)가 산출하는 미국 달러화 지수는 18일 97.46으로 2017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달러화 지수는 19일에도 97.38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0.42% 상승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유가가 올라도 원화 강제 덕분에 수입물가가 하락하면서 충격을 상쇄해 왔다. 하지만 달러 강세 속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 상승의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원달러 환율구간에 따른 외국인자금유출입



자료/블룸버그, 와이즈에프엔, 한화투자증권

높은 한국은 유가 상승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이탈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40원 부근까지 상승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며 "환율이 지금보다 더 상승한다면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고 좋을 일도 아니다. 원화 환율이 오르면

당장은 달러 표시 수출가격도 그만큼 떨어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G2(미국·일본) 무역전쟁으로 관세 장벽이 높아져 생각만큼 수출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원화 약세로 유가 등 수입물가가 상승해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가 더 침체될 수 있다. 게다가 각국이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내려환율이 방향성을 잃게 되면 기업들은 경영전략의 방향을 잃을 수 있어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한·미간 엇갈린 통화 정책도 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 인하의 사전 수순인 '인하 조건'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연 2.00~2.25%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상단이 0.75%p 높은 상황이다. 한·미간 정책금리 격차가 1.00%p 이상 벌어지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김문호 정치경제부장 kmh@metroseoul.co.kr

수출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우려 경상수지도 7년만에 적자 가능성

반도체 수출 부진·외국인 배당 물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012년 5월 이후 계속되던 경상수지도 7년여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고 있는 데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이 몰리기 때문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97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4월 한 달간의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수출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품목별로 반도체가 24.7% 줄었고 자

동차 부품(-4.1%), 선박(-0.7%)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기간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2% 줄어든 307억달러를 기록했다.

4월 경상수지도 적자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근거는 상품수지(상품수출-상품수입)의 감소다. 더군다나 3월부터 유가 상승세를 타면서 수입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배당도 경상수지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한편 3월 정보통신기술(ICT) 무역수지는 6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158억5000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16.3% 줄어들면서 5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수입액은 91억9000만 달러로 1.4% 증가했다. /김문호 정치경제부장

노란우산공제는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가 언제나 뒤에서 응원 하겠습니다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가입장려금
상해보험(2년), 경영자문, 유망시설 등 복지서비스 이용과 지자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부동신입대상소득과 법인기업의 대표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가입자가 감쪽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